Eugene Daily Snapshot

유진투자증권
2026.11.13

황(黃)색 경보

글로벌 매크로팀 이준영_02)368-6136_lee.jy@eugenefn.com

주식 ('26. 11. 12)

(단위: pt, %)

		종가	1D	1W	1M	YTD
한국	KOSPI	5,342.73	-0.6	-0.8	-16.3	26.8
	KOSDAQ	696.53	-1.2	2.7	-18.0	-24.7
미국	S&P500	7,592.40	-0.4	3.2	-2.8	10.9
	NASDAQ	25,366.09	-0.4	4.3	-6.9	9.1
	필라델피아 반도체	10,506.67	-0.5	16.6	-14.1	48.3
유럽	EUROSTOXX50	6,398.98	0.1	2.7	3.2	10.5
	독일 DAX40	26,771.88	0.4	1.7	5.9	9.3
아시아	일본 NIKKEI225	60,819.36	-0.7	-0.4	-11.9	20.8
	대만 가권	43,091.87	-2.6	3.6	-12.6	48.8

채권

(단위: %, b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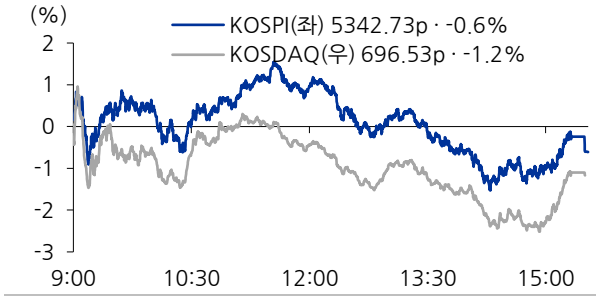
		종가	1D	1W	1M	YTD
한국	국고채 3 년물	3.73	0.0	6.0	-19.2	77.6
	국고채 10 년물	3.94	-1.3	5.0	-36.9	55.2
미국	미국채 2 년물	4.88	14.3	29.7	9.4	140.7
	미국채 10 년물	5.13	14.4	24.5	-10.3	96.2
	미국채 30 년물	5.46	9.9	17.7	-14.5	61.1
	NVDA CDS 5 년물	138.83	-2.2	-4.1	53.0	97.0
	ORCL CDS 5 년물	294.86	-6.1	-9.4	43.0	151.3

환율 및 원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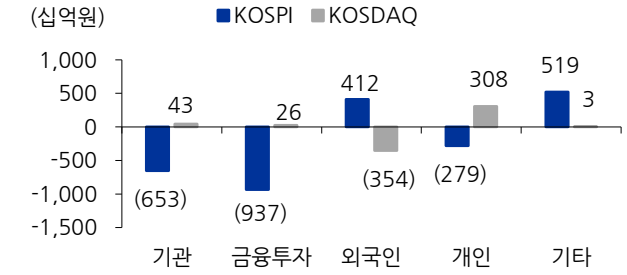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		종가	1D	1W	1M	YTD
환율	원/달러(원)	1,330.70	-0.2	-0.8	-0.3	-7.5
	달러지수(pt)	103.17	0.3	1.6	0.6	5.0
원자재	WTI 연결물($)	88.74	2.6	-2.0	-5.3	54.5
	금 연결물($)	3,885.30	-2.9	-5.5	-7.3	-10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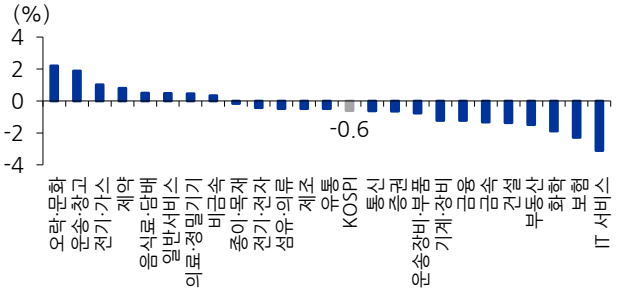
KOSPI · KOSDAQ 일중 등락률 추이 ('26. 11. 12)



투자자별 일간 수급 동향 (KRX 애프터마켓 포함)



KOSPI 일간 업종별 수익률 ('26. 11.12)



간밤 해외 증시

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전격 사임 & 美 10 년물 5.1% 돌파

- **뉴욕증시 3대 지수는** 엔비디아 CEO 사임 &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협상 중단 시사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으로 소폭 하락 마감. 다우(-0.4%)·S&P500(-0.4%)·나스닥(-0.4%), 필 반도체(-0.5%). VIX 18.70(+6.9%).
- 엔비디아(-4.3%, $166.19)는 젠슨 황이 사장·CEO·이사직에서 사임. 콜레트 크레스 CFO가 임시 CEO를 겸임하고, 하비 존스 이사가 사상 첫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. **개장 직후 -13% 급락 후 낙폭 축소.** 사임 전후 목표가 줄하향(번스타인 $400 → $200, 베어드 투자의견 매수 → 중립·$500 → $200).
- 경쟁사는 반사이익 기대에 강세. **AMD(+5.9%)·브로드컴(+5.5%)이 S&P500 상승률 1·2위.** 반면 **엔비디아 생태계는 약세.** 슈퍼마이크로(-11.3%, 법무부 조사 가능성 보도)·네비우스(-16.8%, 설비투자 가이던스 270억 달러로 상향·매출 가이던스 하단 제시)·코어위브(-6.9%, 전일 +25% 후 반락)·마이크론(-1.6%).
-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"이란과 합의 필요 없다" 게시에 전쟁 장기화 우려에 유가 반등 & 국채 매도. **미 10년물 5.13%(+14.4bp)로 5% 돌파,** 2년물 4.88%(+14.3bp), 30년물 5.46%(+9.9bp). **WTI 연결물 $88.79(+2.6%),** 금 연결물 $3,885.30(-2.9%).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20.0만 건(예상 19.4만·전주 19.1만), 4주 평균 19.5만 건 유지, 연속 청구는 2만 건 감소해 170만 건 하회. 10월 기존주택판매 연율 375만 건(예상 389만·9월 397만)으로 2010년 8월 이후 최저.

전일 국내 증시

젠슨 황 해임설에 꺾인 반도체 & 코스닥 하루 만에 700 반납

- **국내 양대 증시는** 엔비디아 젠슨 황 CEO 해임 준비 보도와 이틀 급등 뒤 나온 차익실현 매물에 3거래일 만에 하락**(코스피 -0.6%·코스닥 -1.2%).** 코스피는 장중 +1.6%까지 올랐으나, 옵션만기일 수급 변동성 속에 오후 들어 하락 전환. 코스닥은 하루 만에 700선 반납.
- 1)반도체 훈풍 vs 엔비디아 CEO 리스크. 간밤 **코어위브 호실적 여파로 美 필 반도체 +5.7%, 엔비디아도 정규장 +2.9%.** 다만 장 마감 후 **이사회가 황 CEO 해임을 준비 중이라는 WSJ 보도에 엔비디아 시간외 -8%대 급락. 삼성전자(+1.0%)는 강세 유지, SK하이닉스(-1.8%)는 약세.** 한미반도체·원익IPS 등 장비주도 약세. 2)이틀 급등분 차익실현, 중소형주 매물 출회. 코스피 대형주(-0.6%)·**중소형주(-1.0%) 약세, 코스닥 대형주(-1.5%).**
- 코스피 외국인(+4,121억원) vs 기관(-6,526억원)·개인(-2,785억원). 코스닥 개인(+3,078억원)·기관(+435억원) vs 외국인(-3,543억원)(KRX 애프터마켓 포함).
- 여타 아시아 증시도 반도체주 중심 약세. 닛케이225(-0.7%)는 4거래일 만에 하락(어드반테스트(-4.6%)·키옥시아(-2.8%)), 대만 가권(-2.6%)은 난야테크놀로지(-3.7%)·TSMC(-2.3%) 약세. 홍콩 항셍(-1.3%)은 2거래일 연속 하락.

주: 한국시간 오전 7시 · KRX 정규장 기준 자료 출처: 코스콤, Quantiwise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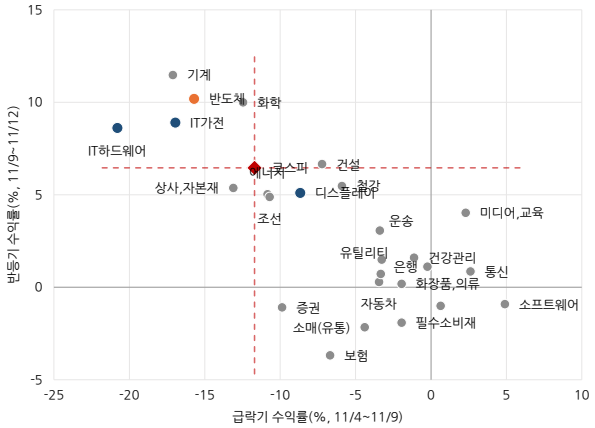
Eugene Daily Snapshot

업종 및 특이 테마 동향

엔터 어닝 서프 & 금융·인터넷 실적 실망

- 미디어·전력기기·운송 강세 ↔ 금융(증권·보험)·IT(SW·HW) 약세. 간밤 엔비디아가 젠슨 황 CEO 해임 준비 보도에 **AI 밸류체인은 업종 내 혼조. 3분기 실적 발표 종목은 희비 교차.**
- (AI 밸류체인) 반도체는 **삼성전자(+1.0%) 상승, SK하이닉스(-1.8%) 하락.** 소부장은 **전공정 장비 중심으로 약세**(피에스케이 -4.5%·주성엔지니어링 -3.6%). 기판(대덕전자 +2.5%)·전력기기(HD 현대일렉트릭 +4.0%는 상승.
- (미디어) **연초 이후 조정받던 엔터 전반 반등.** JYP Ent.(+16.5%)가 3분기 영업이익 480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웃돌며 급등, 하이브(+5.4%)도 동반 상승.
- (운송·음식료) 해운·물류(HMM +3.5%·현대글로비스 +2.5%) 상승. 음식료는 롯데웰푸드(+9.0%)가 3분기 영업이익 +29.7%YoY 호실적에 급등, 삼양식품(+4.5%)은 베트남 공장 신설 계획 발표 속 3거래일 연속 상승.
- (금융) 메리츠금융지주(-13.1%)가 3분기 지배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급락. 손보도 삼성화재(-7.2%)·현대해상(-5.2%) 약세, 삼성화재는 투자손익 부진으로 3분기 순이익 -8.3%YoY.
- (약세) NAVER(-6.4%)는 3분기 매출 사상 최대에도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감소 & 엔비디아(지분 4.1% 보유) CEO 리스크 부담. 게임은 NC(-9.2%)가 주력작 매출 둔화 우려로 하락. 2차전지는 사흘 만에 반락(LG에너지솔루션 -1.8%·삼성SDI -1.2%).
- (코스닥) **주요 업종 전반 약세.** 소부장·바이오(알테오젠 -3.3%)·2차전지(에코프로비엠 -2.2%).

주간 급락기 vs 반등기 업종별 수익률



KOSPI 52 주 신고가 · 신저가

52 주 신고가 (8 종목)		52 주 신저가 (43 종목)	
한국공항	▲10.7	달바글로벌	▼14
유니퀘스트	▲6.2	코오롱인더우	▼10.1
NICE 평가정보	▲1.8	코오롱인더	▼9.7
한국철강	▲1.5	KG 케미칼	▼8.1
에스원	▲0.7	SNT 홀딩스	▼6.5
한진칼우	-	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	▼4.6
진에어	▼0.7	영진약품	▼4.6
진양화학	▼14.1	엠씨넥스	▼4.6
		STX 그린로지스	▼4.2
		이마트	▼3.7

오늘의 클로즈업

엔비디아 변수에 AI 차별화, 만기 이후 외국인 수급이 관건

- 코어위브 호실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지만, 엔비디아 경영진 관련 불확실성이 반등을 제약함. 삼성전자는 상승했으나 SK하이닉스와 전공정 장비주는 약세였고, 기판·전력기기는 강세였음. **AI 밸류체인 안에서도 고객사와 수주·실적 여건에 따라 주가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음.**
- 코스피 외국인은 KRX 정규장 3천억원 순매수로 3거래일 연속 매수했음. 하지만 옵션만기일을 맞아 K200 선물에서는 장중 대규모 순매도 끝에 막판 매수로 전환하는 등 만기 수급이 섞여 있음. **만기 이후에도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어지는지 확인 필요. 코스닥은 외국인이 4,261억원 순매도해 중소형주 비중 확대에 신중할 필요.**
- **신용 수급 부담은 상당 부분 덜어냈음.** 코스피 신용잔고는 19.8조원으로 2/2 이후 최저까지 줄어, **강제 청산에 따른 하방 압력은 약해진 것으로 판단.** 고객예탁금은 85.2조원으로 연중 최저라 개인 자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. **당분간 반등 탄력은 외국인 수급에 좌우될 전망.**
- 단기 급등주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, 만기 이후 수급과 이익 전망 상향 여부를 확인하며 대상을 좁혀가는 전략이 유효.

증시 자금 동향

(단위: 조원)

		11/11 일	1D	1W	1M
고객예탁금		85.5	0.26	-3.74	-14.63
신용잔고	거래소	19.8	-0.48	-1.98	-6.12
	코스닥	5.8	-0.14	-0.73	-1.73
수익증권	주식형(전체)	303.9	4.41	127.73	104.07
	채권형(전체)	220.5	0.20	11.79	15.70
MMF		271.9	-1.31	-7.09	11.67

KOSPI 기관/외국인 합산 순매수 상위 종목

순위	종목명	종가(원)	등락률	대금(억원)
1	삼성전자	208,000	▲1	4,775
2	삼성전자우	168,300	▲2	1,465
3	삼성생명	250,000	▲1	464
4	효성중공업	1,837,000	▲2.5	203
5	LS ELECTRIC	124,500	▲2.1	130
6	하이브	155,700	▲5.4	127
7	삼성에스디에스	230,500	▼0	119
8	현대글로비스	205,500	▲2.5	95
9	HD 현대중공업	267,500	▲1.9	87
10	삼성중공업	16,560	▲0.4	85